

기고

우리집 대피계획, 어린이 안전 지키는 가장 쉬운 준비 겨울철 안전, 지금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겨울철을 맞아 가정 내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집 대피계획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불이 났을 때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가족끼리 어떤 역할을 맡을지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리집 대피계획의 첫 단계는 집 안의 위험요인을 찾아보는 것이다. 콘센트에 너무 많은 전기제품을 꽂아 두거나, 전기장판을 접어 사용하는 행동은 화재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주방에서 불을 사용할 때 주변에 휴지나 수건 같은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대피 경로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침실에서 거실, 현관, 계단을 거쳐 밖으로 나가는 기본 경로를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현관 쪽에 불이나 연기가 심해 나갈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베란다나 완강기 등 두 번째 탈출 방법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가족 역할 분담도 안전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은 119 신고를 맡고, 다른 사람은 어린이나 노약자를 돕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외부로 대피한 후에는 모일 장소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파트 놀이터, 단지 정문, 학교 운동장 등 모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적당하다.

집합장소가 정해져 있을 경우, 가족이 흩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고 대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대피계획은 한 번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걸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동해 보면 어두운 곳, 장애물, 위험요인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대피계획을 더 안전하게 보완할 수 있다.

우리집 대피계획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수칙이다. 10분만 투자해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각 가정의 대피계획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길 바란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연웅

사람들은 대체로 남의 탓을 잘한다. 거의 모든 이들이 그렇다고 볼 수도 있다. 잘 된 것은 내 탓, 잘못된 것은 내 탓으로 돌리면서, 이는 어느 한 사람이나 한 부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뼈저리는 것이다. 즉, 뼈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사실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안 보고 살아도 아쉬울 것이 손뼉만도 없어 등으로, 이렇게 자주 뼈기의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미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아무도 없게 된다. 아니 미고 살 사람만이 아니다. 광범한 대화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사람마저도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나날이 각박해져 가는 작금의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는 주변인뿐만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도 마찬가지다. 어떤 정치인은 험한 말로, 어떤 작가는 독한 문장으로 그리고 어떤 기사는 험하고 악한 기사로 무차별적 공격을 해대는 경우도 많다. 물론 기타 부류들도. 이런 상황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들의 말로는 대체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암에 걸려서, 고독해서, 혹은 모든 권력을 잃어버린 허무함으로 인해 쓸쓸히 또는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했다. 인생은 참으로 짧다. 순간이다. 그래서 모든 부귀영화도 한때의 꿈일 수 있다.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미국에서 망명 생활하다가 사후에야 고국에 돌아왔다.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원팔에게 저격당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두가 상상치도 못하는 자정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스스로에게 울가미를 씌어버렸다. 아주 단단하게.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는 불명예를 스스로 안아버린 것이다. 반성

의 기색은 여전히 없다. 하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참으로 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에 보낸 선물이라는 말까지 토해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소인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다 보니까 별다른 짓거리까지 다하고 있는 것 같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현직 대통령 역시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 면 역대 대통령 중 제대로 삶을 마감한 사람은 누구인가. 김대중·김영삼 대통령이다. 물론 이들도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 역정은 형극의 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상기한 각종 전직 대통령들

과는 다른 형태다.

그야말로 이 나라를 민주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에 맞서려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 패소 등에 의해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죽음의 고비를 엄청나게 넘었고. 그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생 역정은 "죽음을 넘어, 사선을 넘어"의 삶이었다. 이 나라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투쟁이었다 말이다. 여하튼 앞서 예를 든 역대 대통령들만 봐도 더하기의 삶보다는 뼈기의 삶이 더 많았다고 생각되는 쪽이 훨씬 더 불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이 나라의 최고 권좌를 누렸던 사람들도 이리는데 하물며 기타의 사람들은 어땠겠는가. 모든 문물이 극도로 발전해가는 작금의 사회, 이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소외되는 계층은 뼈기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타의에 의한 뼈기의 삶이 되어버린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이런 제발 우리 모두 타의든 자의든 더하기의 삶을 살아보자.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겨울철 전기 사용, 안전이 따듯함을 지켜줍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기히터와 전기장판, 열선 등 전기난방기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방용품은 겨울철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 전기화재는 대부분 일상 속 작은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래 사용한 전기제품이나 전선 상태를 미처 살피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용 전 외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상이 느껴질 때는 잠시 사용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난방기기를 장시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전원을 꺼 주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전기장판 역시 올바른 사용이 중요합니다. 접힌 상태로 사용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면 내부 열선이 손상될 수 있어

의가 필요합니다. 보관할 때는 말아서 두고, 온도는 생활에 불편하지 않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보다 안전한 사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화재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전열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의 멀티탭에 많은 제품을

연결하면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력 소모가 큰 기기는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류 차단 기능이 있는 멀티탭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난방기기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사용하고, 평소와 다른 점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화재 위험은 충분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옮겨올 때 따뜻함과 함께 안전도 함께 지켜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당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정호

오늘의 운세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음력 11월 5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aily forecasts. Includes signs like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pricing.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